뻡뻡뾃뻿-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경기의 藝人匠人

제4753호 9

2004년 3월 15일 월요일

나뭇결에 스민 '한국의 美'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4>

제14호 소목장(백골) 김 의 용씨

"아무리 칠을 잘하고 화려한 장식을 붙이더라도 목가구의 생명은 백골(柏滑)을 얼마나 잘 짰느냐가 중요하죠"

톱밥가루가 휘날리는 20여평의 목공예방에는 나무로 만든 앉은뱅이상과 궤 등 완성품이 빈공간에 쌓여있고 큰 장롱의 일부처럼 보이는 2~3m의 나무틀이 차고차곡 빈곳을 채우고 있었다.

옛 선비들이 글공부를 하며 장원급제를 꿈꿨을 '두루마리 서안'(일명 선비상)이나 너덧 층의 선반이 네모반듯하게 올려져 있는 사방탁자(四方卓子)의 단아한 자태가 눈길을 끈다.

'백골'…나무로 만든 옻칠전의 건축물·공예품

성남시가 지난 1994년 전통공예 활성화 및 전승을 위해 설립한 '민속공예전시관' 지하에 5년전 입주한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백골) 김의용씨(55·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의 공방이다.

대목장이 한옥집 등 규모가 큰 건물을 짓는데 반해 김씨는 장롱, 궤, 경대, 문갑 등 소품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백골부문 장인이다.

'백골'은 나무로 된 건축물이나 공예품의 겉표면에 겉치레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옷칠 등을 하기 전에 갓 만들어 놓은 소반을 '백골소반'이라 부르며, 궁궐이나 절을 짓고 나서 단청을 입히지 않은 경우 '백골집'이라 부른다.

나무를 재료로 한 작품들은 백골 상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무결이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원목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김씨는 청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자 서울로 올라와 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4호였던 고 민종태 선생에게 목공예를 익혔다. 그 후 30여년간 나무와 인연을 맺어 한평생 나뭇결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단있는 삶을 살고 있다.

故 민종태 선생에 목공예 사사…30여년 외길

전통목가구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전통목가구는 못을 전혀 쓰지않아 오랫동안 원형을 유지할 수 있지요. 또 나무에 홈을 판후 나무를 껴맞추거나 엇갈려 짜맞춰 사용하기 때문에 견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씨는 나무와 나무를 45도로 맞추는 사궤맞춤 등 각종 맞춤 기술은 연결부분이 조금만 어긋나도 견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밝힌다.

그는 "모든 짜맞춤은 정교한 것이 생명"이라며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4자짜리 장농에서부터 임금님 수랏상으로 쓰였던 붉은 칠의 주흑칠호족반(朱黑漆虎足盤), 책과 꽃병들을 얹혀놓는 사방탁자, 반닫이, 교자상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

특히 작은 휴지케이스 표면에도 나무의 수축을 고려해 작은 홈을 파내는 정성을 담기도 했다.

김씨는 "몇 가지인지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1, 2층 공예전시관에는 김씨가 그동안 정성들여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제작기간만도 1년이 걸렸다는 길이 14자짜리의 장농 '궤목 은선상감'은 은선(銀線)을 상감기법으로 모양을 넣은 장농이며, 느티나무로 만든 교자상은 단순하지만 강인함이 느껴진다.

또 지난 월드컵을 기념해 제작한 월드컵 휘장이 담긴 나무퍼즐과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가 들어간 퍼즐도 제작했다.

'못' 사용없이…나무와 나무 짜맞춤 '정교'

이 퍼즐은 성남시 문화상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캐릭터와 배경을 이룬 나무의 색깔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천연재료인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전혀 해가 없는 놀이기구다.

이런 김씨의 창작열은 지난 2001년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해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대상 작품은 종이 폐자재에 엷은 나무를 덧댄 것으로 수려한 산세를 상감기법으로 만든 휴지케이스와 방향제케이스 세트다.

이밖에 공예전시관에는 새와 꽃을 직접 새겨 순금을 입힌 보석함이나 경대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김씨의 작품은 배용준·전도연 주연의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에 20여점이 소품으로 사용돼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통문화는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전통의 멋을 살려 발전시키는 것이 장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좋은 백골을 짜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구해야 한다. 김씨는 전통한옥건물의 해체과정에서 구한 목재가 가장 좋다고 한다.

"한옥에 쓰인 목재는 잘 건조돼 있어 주로 사용하는 편이지요. 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갈라지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요"

김씨는 공예전시관이나 고향 청주 창고에 홍송(紅松)이나 사송(沙松), 춘향목, 계목 등의 나무를 보관해 사용하고 있다.

"전통문화, 시대에 맞게 개발·변화시켜야"

우리 전통목가구의 멋은 화려하지 않지만 나뭇결을 고스란히 살린 미감과 단순하지만 투박한 정감이 인상적이다. 또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사용하며,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작상의 묘미가 더욱 눈길을 끈다.

투박한 느낌의 함에서 꽉찬 모퉁이의 매끈한 이음새와 평평한 면은 기하학적인 예술세계를 엿보는 듯 하다.

전통목가구는 일상생활 용품이었다. 살림이 넉넉한 집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 손때를 묻히며, 가가손손 이어져 내려왔다.

그만큼 실용적이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게 안성맞춤인 크기가 정답기까지 하다.

"하나하나의 작품에 혼을 불어 넣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맞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작품에 정성이 안들어갈 수 없죠"

아마도 옛 장인들의 정신은 무엇을 만들던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하나쯤은 지녔던 것 같다.

그 때문인가 김씨는 "내 작품에 책임질 수 있는 정신을 지녀야 나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옛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결과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온갖 정성을 담는다.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에 기계를 쓸 뿐 홈을 파거나 다듬는 등 대부분의 작업은 수작업이다.

아들 희준씨 脈이어…올 12월 첫 개인전 계획

김씨는 25여년전 작업도중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밝고 긍정적인 생각때문인지 별 불편함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오랫동안 몸소 익혀야하는 목공예를 배우려는 사람도, 전통을 잇겠다는 의지도 부족한 현실에서 김씨의 명맥있기는 다소 힘겨워보였다.

김씨는 "정부에서 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문화재를 지정했다면 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의 전승지원금 자체로는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작품을 구입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유자의 대가 끝기면 다시는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김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린다고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좀체 바깥출입이 드물다는 김씨는 든든함과 내밀함으로 잘짜여진 목가구처럼 단단한 작업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아들 희준씨(31)가 아버지의 맥을 잇고 있으며, 올 12월께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원지영기자 jywon@kgib.co.kr